

같이 보기

: 이달의 산업보건인

공감을 통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것을 채운다

한화토탈에너지스 보건관리자
이경하

글 안유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한화토탈에너지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한화토탈에너지스”

충남 1988년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19개 단위 공장으로 구성된 종합 에너지,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갖춘 한화토탈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부터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 파자라지일렌(Px), 스티렌모노머(SM) 등 화학제품(Base Chemical)까지 다양한 종류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3년 세계적인 프랑스 화학·에너지기업인 토탈그룹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케미컬 & 에너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데 이어 2015년 5월 한화그룹 계열사로 새롭게 편입, 2022년 4월 '한화토탈에너지스'로 사명이 변경되어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케미컬 & 에너지 리더로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회사명 변천사 삼성종합화학 ▶ 삼성아토피나 ▶ 삼성토탈 ▶ 한화토탈 ▶ 한화토탈에너지스



Q | 산업보건 전문간호사이자 보건학박사이기도 하십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_____ 한화토탈에너지스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 관리자 이경하입니다. ‘존중하라, 그리고 베풀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상대도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응급실 및 수술실 근무 경력으로 1995년 그룹 공채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점은 강한 친화력입니다. 덕분에 무엇보다 근로자를 가족처럼 대한다는 소리를 들어왔고,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케어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곧 질병 치유의 도움닫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장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많은 부분을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특히 삼성토탈에서 한화토탈로 사업장이 바뀌면서 ‘나를 위한 투자는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25년간 근무를 하면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알아야 할 것과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고, 보건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업무 또는 업무 외의 일일지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꾸준히 배움의 길을 갈 것입니다.

Q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_____ 국내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되는 인증으로, 해외인증의 경우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인증받는 ISO 45001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 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결과를 자체 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기업손실 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 체계를 말합니다.

Q | 현재 안전보건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_____ 사업장에서 보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소음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사 공동으로 추진

같이 보기

: 이달의 산업보건인



하는 업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건강증진활동: 연도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진단 실시, 건강증진 시설 이용지원, 뇌·심혈관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대작업자 관리, 야간작업자 관리
- ② 안전작업문화: 정착 무재해 운동 추진, 노사 합동안전점검 테마운영, 안전보건 홍보캠페인 등 실시
- ③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외부 전문 강사 초빙, 분야별 특성화 교육, 안전보건 소식지 및 사고사례 실시
- ④ 건강관리 지원, 자가측정기 설치 및 운영, 전문의 초빙 상담, 사내 물리·운동·심리 치료 실시

Q |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에서 봉사상을 받으셨습니까. 봉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_____ '봉사란 도미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결국 돌고 돌아 도움을 준 자신이 또 다른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현재 국제 3620지구 태안한결로타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타리는 인본인 사회답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소외되고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추적 요소로 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로타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선의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로타리의 주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자 로타리안 모두가기에 로타리가 품위를 위한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봉사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어울리며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Q |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과 가장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_____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화학 공장이 다 보니 화상 사고나 추락 등 대형 사고가 있습니다. 사실 제 업무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누구든, 어떤 환경에 있든, 저는 사람을 살려야만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몇 해 전, 근무 시간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지 않는다"는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앰블런스를 부른 다음 급히 응급 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협력사 직원이었던 환자는 심근경색으로 이미 의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도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동료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그곳에선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했고 저는 다시 신속히 서산 소재의 종합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후송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심폐소생술로 다시 태어나 현재 건강하게 생

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아쉬운 점은 인프라와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응급상황 시 응급 구조 및 병원 인프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산은 아직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더디게 치료가 이루어져 우려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 | 보건관리자로서 사내 직원 및 전국의 산업보건인들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_____ 사업장에서는 혼자 하는 업무보다 근로자와의 코웁(co-work)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간호사 혼자만으로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자제하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전하면서 실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관리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외부 아로마 강사를 섭섭외하고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매번 무산되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차라리 내가 배워 우리 직원들에게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직접 배워 직원들에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기는 폭발적입니다. 저는 아로마 향기로 인향만리(人香萬里)의 꿈을 꾸어 봅니다. 여러분들도 직원들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알아주는 근로자가 생길 것입니다. 양지가 빛이 나는 것은 음지가 있기 때문이고 양지가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은 음지가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